



나무기술은 CES 2022에서 다양한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Smart DX 부스를 마련한다. /나무기술 제공



세이프웨어가 제작하고 있는 인체 보호용 웨어러블 에어백 시스템. /세이프웨어 제공



솔트룩스는 매회 CES에 참가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공개한다. /솔트룩스 제공

광주 소재 인공지능 전문기업들 “AI 기술력 알린다”

솔트룩스와 나무기술, 세이프웨어 등 광주 소재 인공지능(AI) 전문기업들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해외진출을 타진한다.

광주에 등지를 둔 이들 기업은 CES 2022에서 AI·클라우드 등 SW 서비스부터 ‘메타휴먼’, ‘웨어러블’ 등 주력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솔트룩스는 ‘테크 웨스트’ 전시장 내 ‘베네치안 엑스포’ 홀에 전시관을 차린다. 솔트룩스는 ▲딥시그널 ▲메타휴먼 ▲로봇 ▲AI컨택센터(AICC) 등 네 가지 주제로 부스를 구성, 국내외 참가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 홍보 및 글로벌 네

솔트룩스, 메타 휴먼 ‘에린’ 최초 공개
나무기술, 스마트DX 솔루션 체험부스
세이프웨어, 인체보호 웨어러블 에어백

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내년 미국, 한국에서 동시에 출시가 예정된 딥시그널은 초개인화 AI 서비스다. 전세계 웹에서 실시간 심층 정보 수집과 인지검색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시간 추천 및 영향력 있는 인물, 기관에 대한 인맥 지도를 제공한다.

솔트룩스는 이번 CES 2022에서 메타휴먼 ‘에린’을 새롭게 선보인다. 실사에 가까운 외형과 더욱 고도화된 얼굴인식 기능 등이 탑재된 에린은 이번 전시에서 솔트룩스 홍보와 딥시그널 소개를 담당한다. 특히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특보와 AI컨택센터 테마에서는 다수의

도입 사례를 통해 상담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센터 운영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고, 미국 현지 기업들에 공급된 솔트룩스 고객 상담 솔루션도 소개된다.

나무기술은 3년 연속 CES에 참가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나무기술은 올해 디지털 전환 솔루션 ‘스마트 DX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 DX 솔루션은 개방성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설계된 통합 솔루션이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미래 핵심 기술들이 집약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IaaS, PaaS, SaaS를 제공하며 SaaS 중에서 빅데이

터 분석 및 데브옵스(DevOps) ML옵스(MLOps), 데이터옵스(DataOps)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광주에 등지를 둔 혁신 AI 기업 세이프웨어는 3년 만에 CES에 참가한다. 세이프웨어는 다양한 분야의 웨어러블 에어백 시스템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번 CES에서는 인체 보호용 웨어러블 에어백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제품에는 추락 보호용 웨어러블 에어백이 있으며, 그 외에 스포츠·레저 분야, 낙상보호 에어백 벨트, 영유아 직실방지 에어백 시스템 등의 안전 시스템을 개발, 상용화하고 있다.

세이프웨어의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의 경우 감지센서를 통해 추락이 감지되면 에어백을 팽창시켜 인체를 보호한다.

특히 연동된 IoT(사물인터넷) 모듈 통신망에서 사고 위치와 환자 생체정보를 전송, 응급출동과 긴급 이송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용이하다.

이들 기업은 CES 참가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해외시장의 파트너를 확보하고 가격·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솔트룩스와 나무기술, 세이프웨어는 ‘AI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20분 거리 1분만에...

‘베이거스 루프’ 체험해보니
테슬라 전기차 모델 이용
CES 2022 기간 무료 운행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로 출발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4일(현지시간) ‘CES 2022’의 주요 전시장 가운데 하나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앞. 아직 개막 전인데도 주차구역에 대기 중인 테슬라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여러 눈에 띈다.

LVCC 웨스트홀에서 센트럴홀로 이동하기 위해 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에 올라탔다. 운전자는 목적지를 묻더니 바로 출발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보링 컴퍼니’의 지하 터널 ‘베이거스 루프(Loop)’ 모습이 보였다. 이 루프는 컨벤션센터 센트럴홀과 사우스홀, 웨스트홀 등을 연결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앞에서 사람들이 베이거스 루프 이용을 위해 주차구역에 대기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이 루프는 정류장에서 차량을 골라 타 목적지를 말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직접 차량을 몰아 터널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테슬라 전기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지하차도 입구로 내려갔다. 원형 터널의 폭은 테슬라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넓지 않았다.

각 정류장 간의 거리도 1분 남짓 걸리

는 짧은 구간이었다. 내시 자율주행을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웠으나, 미래에 광범위하게 펼쳐질 새로운 이동수단을 미리 엿보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게다가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운영된다.

이 루프를 이용하면 걸어서 15~20분 걸리는 거리도 1분 만에 갈 수 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 루프 터널을

라스베이거스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터널이 완공되면 약 47km 길이의 터널로 51개의 정류장을 연결해 라스베이거스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무인화 운송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13개 기업 ‘포스코형 벤처플랫폼’ 소개

RIST 혁신 기술도 선보
팻나우·에이아이포켓 ‘두각’

포스코그룹은 CES 2022에서 그룹의 미래 신성장 사업을 발굴·투자하는 ‘포스코형 벤처플랫폼’을 소개한다.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IMP) 등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으로 발굴된 유망 벤처기업들과 공동으로 전시관을 마련한다.

포스코 육성 벤처기업 6개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육성 벤처기업 2개사, 포스텍 창업 벤처기업 5개사 등 총 13개의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RIST의 혁신 기술도 선보일 계획이다.

포스코가 벤처플랫폼을 통해 육성 중인 벤처기업 ‘팻나우’와 ‘에이아이포켓’은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에서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에 각각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팻나우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플랫폼을, 에이아이포켓은 AI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진단하는 플랫폼을 개발하

는 기업이다.

특히 지난 10월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해 포스코·포스텍·RIST·포항시와 함께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래핀스퀘어도 이번 전시에 참여해 그래핀 소재로 만든 가전제품 전시한다. 또 RIST는 AI 기반의 화재 감시 자율주행 로봇 등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스코는 고유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벤처밸리를 조성하고 벤처펀드를 통해 1조 벤처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의 창업보육부터 제품 개발, 판로 개척 등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왔다.

포스코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 7월에는 포항에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개관해 벤처기업들이 국내 최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달에는 IMP 10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미래 10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굿 투 그레이트(Good To Great)’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

북미시장 출사표 던진 국내 메타버스 기업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2’에는 가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한다. 이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 기업들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은 메타버스 플랫폼, 대체불가토큰(NFT), 인공위성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한컴프론트리스의 3차원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XR판도라’를 처음 공개한다. XR판도라는 한컴오피스와 연동해 PDF를 비롯해 워드, 엑셀 등 다양한 문서를 공유 및 편집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 음성 대화 등 회의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룩시드랩스, 인지건강 관리 솔루션
한컴, 플랫폼 ‘XR판도라’ 첫 공개
현대차, 소형 이동체 로봇 ‘모베드’

더불어 한컴위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쇼핑 및 NFT 활용이 가능한 ‘아로와나 풀’, 한글과컴퓨터는 메타버스 서비스 ‘한컴타운’을 각각 소개한다. 한컴그룹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메타버스와 NFT 등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파트너사 발굴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 및 임직원들은 CES 2022를

직접 참관한다. 스타트업 룩시드랩스는 가상현실(VR) 기반 인지 건강관리 코치 ‘루시(LUCY)’로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했다.

룩시드랩스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멘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룩시드랩스는 지난 ‘CES 2018’에서도 VR·증강현실(AR)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룩시드랩스가 개발한 ‘루시’는 생체 신호를 활용해 경도인지장애에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루시는 사용자가 몰입감 높은 VR 게임을 즐기는 동안 사용자의 행동과 뇌파, 안구 운동과 같은 신경생리학적 반응을 포착하고 분석한다. 이어 작업 기억력, 주의력, 공간 지남력과 같은 인지 역량 평가는 물론 경도인지장애의 조기 발견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노인들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VR 기반 인지훈련 게임과 실시간 인지 기능 분석 리포트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CES 2022’에서 메타버스를 주제로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



한컴그룹이 CES 2022에 마련한 부스. /한글과컴퓨터그룹 제공

장한다’는 내용의 전시물과 강연을 펼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로보틱스 기술이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인류 사회에 이동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전시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로보틱스 기술이 가상과 현실 세계를 결합한 메타버스와도 연결되게끔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 예시들과 함께 소개

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최근 개발한 소형 이동체 로봇 ‘모베드’를 비롯해 올해 인수한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 ‘스팟’과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도 CES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특히 모베드는 이번 CES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AI타임스 제공·정리=이연수 기자